

조기축구 하더라도 회식은 안돼...알쏭달쏭 '거리두기 완화'

헬스장 운동시 마스크...개인 수건 쓰고 출입명단 작성

활동반경 늘었지만 거리두기 계속...마스크·손씻기 철저

#.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이제 밀집시설 가도 되는건가요?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오 늘부터 헬스장에서 샤워할 수 있나 요, 마스크는 더이상 쓰지 않아도 되 나요?

지난 1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5일까지 이어가되 강도 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관련 질문이 속속 올라 왔다.

정부는 3월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국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 조치를 4월19일 까지 이어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생활방역 전환이나 등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에 대한 피로도, 경제활동 침체 등을 고려해 강도는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변 화를 두고 일부에선 헛갈린다는 반응 이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등 사람들이 밀접한 시 설은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는건지, 그동안 자제했던 모임이나 행

사는 다시 열어도 되는건지 주요 사항을 짚어봤다.

먼저 정부는 '운영중단'을 권고 했던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 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 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클럽과 헬스장, 학원 등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될 때도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할 법적 강제성은 없었으나 만약 문을 열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등 정해진 방역지침 을 따라야만 했다.

강도가 완화된 이후도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지켜야 한다. 헬스장의 경우 개인 운동복, 수건을 지참해 야 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운동할 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종교시설 등 다수가 모이 는 시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 거리 유지, 방역관리자 두기 등 이전과 같이 방역에 신경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시설에 대한 통제 수준이 다소 낮아졌을 뿐 이번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큰 골격에서 보면 기존 고강도 지침과 비슷 하다.

정부는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실의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자연휴 양림, 수목원 등은 22일부터 운영 을 시작한다.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실의시설 에 대해서도 '무관중'과 같이 분산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운영 을 허용한다.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 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주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험도를 평가해서 저위험의 경우 먼저 제한을 푸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기준 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간부분의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야외 체육시설이 개방돼 조기 축구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전후 친목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삼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파력 이 매우 크고 무증상 감염사례 또 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 고 있다.

특히 4월말~5월초 황금연휴가 겹쳐 있어 접촉이 잦아질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

는 당부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도 많고 약한 증상의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는 의심이 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된다고 해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은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홍우 기자



“대학생 99%, 등록금 반환 필요하다”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대학생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과 교육부, 대교협, 대학생 3자 협의 회 소집을 촉구했다.

미래교육 외치면서 원격수업 기반 안 닦은 교육당국도 책임

“학교·교사 따라 원격수업 질 자체 달라”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이 시작으로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이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았다. 원격수업을 시작하지도 어느덧 2 주가 흘렀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는 교육 당국과 학교에 대한 성토 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교사와 긴밀 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이 첫 타자로 온라인 개학에 돌입한 이후 2주 정도 흘렀지만, 아직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락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5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선정희씨(44·여)씨는 “선생님들도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부모한테는 내 아이의 하나뿐인 선생님이 다”며 “일주일에 한번 전화하기도 어렵고 e학습터나 클래스팅 사용 법이 익숙하지 않아 문자를 보내도 저녁이 다 돼야 답장이 온다”고 토로했다.

학교나 교사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곽현준(46)씨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뒀는데 원격수업 기간 교사의 태도나 수업의 질이 크게 차이 나서 당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학부모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업 인프라가 뛰어난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공교육에서 원격수업이 처음으로 시도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사의 원격수업 능력이 차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조인호 기자

검찰, ‘부다’ 강훈 강력부로 불러

조주빈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다’ 강훈(19·구속)에 대한 4차 소환조사가 들어갔다. 조씨 공범들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검찰은 강씨와 관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에도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께부터 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변호인 임회 하 피의자신문을 진행 중이다. 송치 당일인 지난 17일과 19일, 20일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검찰은 이날 강씨를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가 있는 별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력부는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강씨 변호인은 별관에 들어가며 “(검찰이 강씨의) 가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경위와 범위, 정도를 추궁하며 강씨가 ‘박사방’ 사건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판단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공모관계를 넘어 역할분담 및 구체적 지휘·통솔관계가 있었는지 도 조사할 전망이다.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